민선 8기 단체장에 듣는다

“청년 찾아오는 큰 목포…‘생산도시’ 목포 만들겠다”

박홍률 목포시장

청년 스마트산단 조성해 신생기업 100개·일자리 1만개 창출
AI·에너지특화기업, 의대 유치…경제 체질 개선 최선 다할 것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8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더 큰 목포를 만들어달라는 시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 4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며 “민심을 받들어서 옛 명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큰 목포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시장은 “목포는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젊은 세대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청·장년층은 인근 신도시로 옮겨 가는 추세”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기반 산업은 매우 부족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도 절실하다”고 진단하고, 냉정한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안은.

▲코로나19가 2년이 넘게 진행되면서 국내 관광이 침체하고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됐다. 이런 상황에서 목포는 산업 기반이 허약해 위기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지역 화폐 연간 1500억원 발행, 1% 시민은행 운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안전보험 노란우산 공제비용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등 실행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목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20만평 규모의 청년 스마트산단을 조성해 신생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해 청년이 찾아오는 젊고 큰 도시를 건설하겠다.

4차 산업,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융합 중심의 스마트 팩토리 육성, 맞춤형 청년 정책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

또 신재생 에너지산업 전진기지 조성, 해상풍력 배후단지·지원부두건설, 해상풍력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국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에너지특화기업 유치 등 생산도시로 변화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친환경선박 수리 조선 특화 산단 조성, 스마트 선박 건조 수리 체계 구축, 선박부품 연구 개발 및 물류 체인 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겠다.

-시민안전 등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준비 중인 정책은?

▲어르신, 장애인, 여성,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인 정책을 내실 있게 펼쳐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복지정책의 기본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강 효도비 지급, 어르신 무릎·백내장 수술비 지급, 장애인 24시간 돌봄시스템 도입,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도입, 다문화가정 대학생 입학금 지원, 출산축하금 확대, 공공어린이 돌봄센터, 유치원 교육비 본인부담금 지원, 부주·옥암권 복합문화공간 신설, 야외키즈카페 조성 등을 공약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약에는 예산 확보, 행정 절차 등이 중요한데 이와 같은 공약을 앞으로 정밀하게 검토해 현실화와 내실화를 기하겠다.

이와 함께 복지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의대 유치다. 의대 유치는 인도적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문제다.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유치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목포뿐만 아니라 전남 서남권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향상시켜야 한다. 인근 지자체 주민, 정치권과 힘을 모아 발판을 마련하겠다.

-무소속이다. 사실상 당의 지원이 어려운데, 극복할 대책은 갖고 있는가.

▲정파를 초월해서 오직 목포 발전에만 최선을 다하겠다. 무소속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겠다. 여야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당적이 있으면 오히려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국회를 방문하면 국회의원 면담하기도 굉장히 힘들다. 반면 무소속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환영한다.

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내며 중앙 정치인들과도 두터운 관계를 형성했다. 무소속이라는 장점과 인맥을 통해 대통령실, 정부 부처, 여야 정치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시민들을 섬기는 자세로 민선 8기를 힘차게 열어가겠다. 오로지 시민을 바라보고, 미래를 고민하며 목포의 재도약에 힘을 다하겠다. 목포의 도약과 발전이라는 지상 목표를 향해 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당부드린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청년의 열정과 웃음이 가득한 도시, 무한한 가능성으로 도약이 계속되는 도시인 진정한 목포 발전을 반드시 완성하겠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광주 경제위기 극복 ‘민생경제대책본부’ 가동

시·경제단체 등 참여…민·관 합동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광주 지방자치단체, 경제 단체·기관들이 경제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해 민생경제 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광주 민생경제 대책본부는 지난 8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관별 추진 상황, 대책본부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대책본부에는 광주시,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16개 기관이 참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민생경제대책본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위기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광주시 맞춤형 경제위기 시책을 발굴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참석 기관들은 경제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각종 사업 발굴에 공동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광주시도 민선 8기를 맞아 공공물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57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공공물가 억제와 경제 안전망 강화, 지역경제유지를 위한 소비 촉진 등 3개 분야 9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정환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6월 소비자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 이상 상승하는 등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광주민생경제대책본부를 구성했다”며 “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대책 발굴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수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기술 실증센터’ 구축

2026년까지…기술 상용화 거점·탄소중립 선도 기대

여수에 탄소중립을 선도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기술(CCU) 실증지원센터가 들어선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 등이 위치한 광양만권이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의 중심지로 떠오를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공모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기술(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선정되면서 오는 2026년까지 국비 100억원 등 총사업비 280억원을 들여 이산화탄소 화학적 전환 통합기술 실증설비와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전용공간 등을 갖춘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을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해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전남도는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해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친환경 이산화탄소 포집·활용기술 지원 체계를 갖추면서 실증 장비 교육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바우처택시 모든 시·군 달린다

교통약자 호응·지역경제 부양 선순환…9월까지 순차적 확대

전남도가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시범운영한 바우처택시가 지역경제 부양에도 도움이 되는 등 선순환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모든 시·군에서 운행하기로 했다. 총 운행 대수는 245대다.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다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요청이 있으면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서비스하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외의 차량이다.

지난해 9월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해남 등 5개 시·군에서 97대로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바우처택시가 도입되면 휠체어 이용자는 장애인콜택시를,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게 돼 이용자 분산으로 휠체어 콜택시의 배차 지연을 해소하고, 이용자 대기 시간도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9개월여간 시범운행 결과 교통약자가 가장 불편해 했던 대기시간이 평균 10분 이상 단축돼 바우처택시 도입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됐다.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교통약자 이용객 수요 증가, 장애인콜택시 관외 이동량 증가 등 장애인의 숙원인 광역이동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이같은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모든 시·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난 1일부터 구례, 보성, 강진, 함평, 영광에서 바우처택시 운행을 추가로 개시한 것을 비롯해 곡성, 고흥, 화순, 진도, 신안은 7월 중 택시 운수종사자와 협약을 할 계획이다.

이후 9월까지 나머지 7개 시·군에서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